

EU, 농산물무역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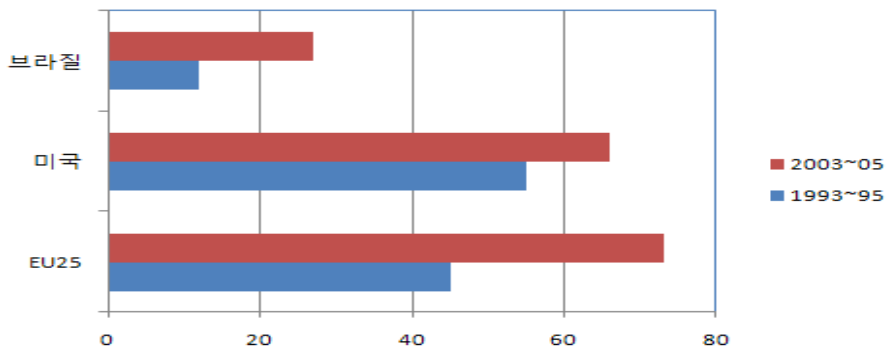
임 송 수*

1. 농산물 무역 현황과 구조

EU-25(2004년까지 유럽연합(EU)에 가입한 회원국을 포함한 25개국 기준)의 농산물 수출은 꾸준히 성장하여 2003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그림 1>. 수출은 2003~05년에 평균 73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미국이 제2위 수출국이고 브라질이 제3위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무역수지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순수출국이다.

그림 1 EU, 미국,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 동향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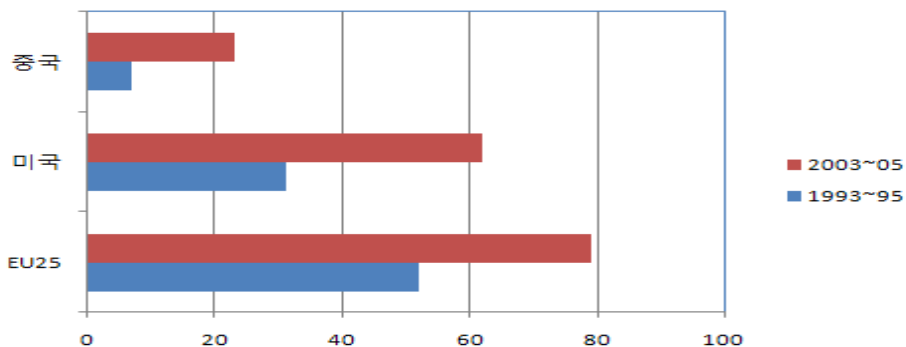
자료: EU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map/02_07.pdf)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ongsoo@krei.re.kr 02-3299-4382

EU-25는 세계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2003~05년에 평균 790억 달러를 수입하여 세계 수입의 20% 정도를 기록하였다<그림 2>. 미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제5위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그 수입 규모를 늘렸다. EU의 농업 무역수지는 2005년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그림 3>.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EU·미국·중국의 농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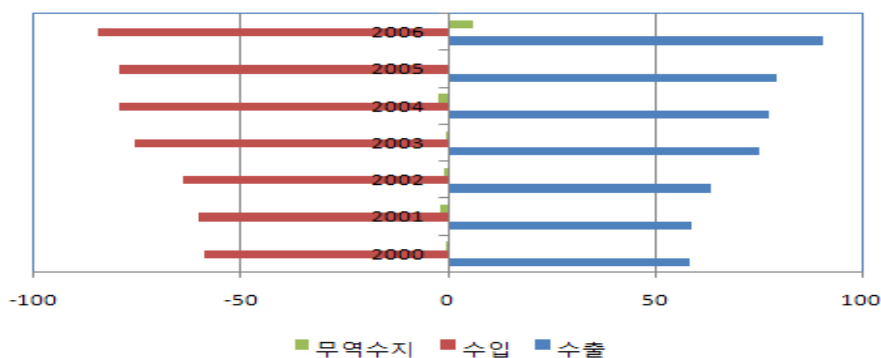
단위: 10억 달러



자료: EU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map/02_07.pdf)

그림 3 EU의 농산물 무역수지 추이

단위: 10억 달러



주: 수입 통계는 재수출 목적의 원료 수입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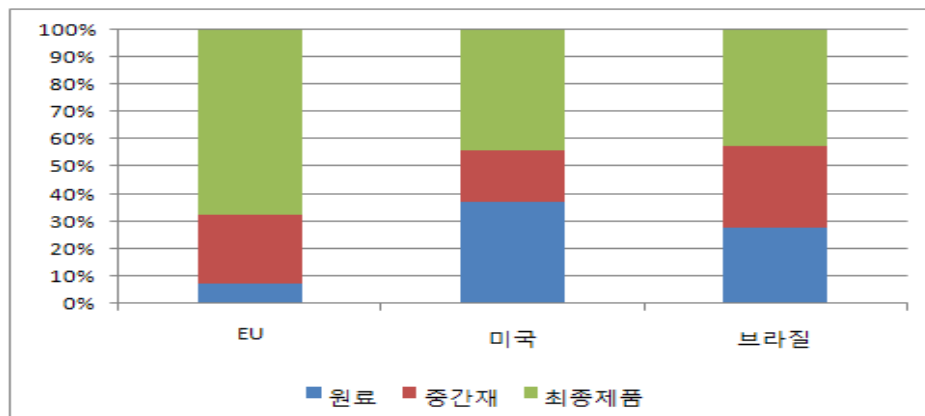
자료: EU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map/02_07.pdf)

수출입하는 농산물은 그 가공 정도에 따라 원료(commodities), 중간재(intermediate products), 최종제품(final products)으로 구분한다. 원료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예: 곡물)로 주로 벌크(bulk)로 유통된다. 중간재는 제1단계 가공(예: 밀에서 밀가루)과 변환을 거친 농산물이며 최종 소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최종제품은 최종 소비에 맞는 농산물로 가공식품과 신선 과일 및 채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농산물 분류 측면에서 보면 EU 농산물 무역은 최종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나타낸다<그림 4>,<그림 5>. 원료 농산물의 경우 세계 수출시장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2001년에 평균 8%에서 2003~05년에 7.5%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최종 제품의 비중은 22.7%에서 24.2%로 오히려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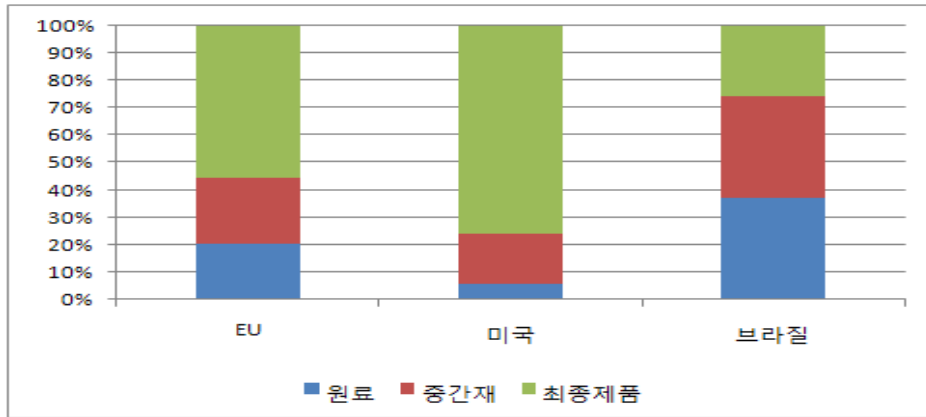
세계시장뿐만 아니라 EU의 농산물 수출입에서도 최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7%와 55%로 절반을 넘어선다. 이와 비교하여 미국은 원료 농산물의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미국의 수입에서 원료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인 반면에 수출에서 원료 농산물의 비중은 무려 76%에 이른다.

그림 4 EU·미국·브라질의 농산물 수출구조 비교



자료: EU 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map/02_07.pdf)

그림 5 EU·미국·브라질의 농산물 수입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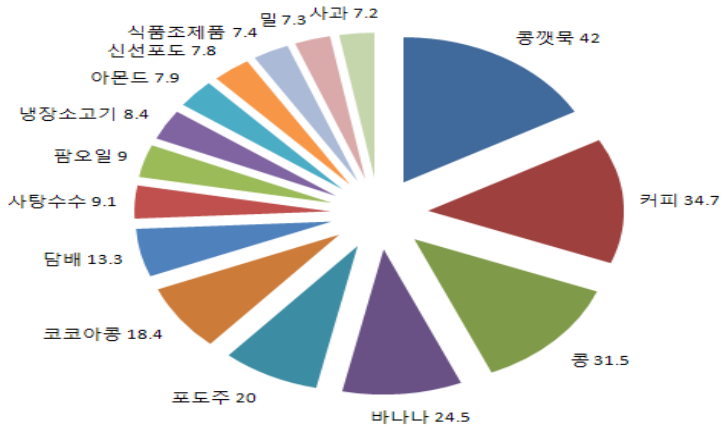
자료: EU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map/02_07.pdf)

2003~05년에 EU 시장에 대한 최대 공급국은 브라질로 전체 수입의 14%를 차지하였고 미국이 11%, 아르헨티나가 7% 순이다. 2005년 한해 수치만 보면 브라질이 120억 달러, 미국 85억 달러, 아르헨티나 60억 달러를 EU에 수출하였다. EU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농산물은 콩깻묵(중간재)과 콩(원료)이다<그림 6>. 콩깻묵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들여오고 콩은 브라질과 미국이 주요 수출국이다. 포도주는 호주산이 수입 시장의 1/3가량을 차지한다.

2004~06년에 총 농산물 수입액은 평균 647억€에 이른다.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2003~05년에 평균 530억 달러로 수입액의 67%에 이른다. 이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합계인 460억 달러보다도 큰 세계 최대 규모이다. 수입 시장 점유율은 브라질이 14%,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이 22%, ACP 그룹(아프리카, 카리브 연안, 태평양 섬나라)이 15%이다.

그림 6 EU-25의 주요 수입 농산물(2004~06년 평균)

단위: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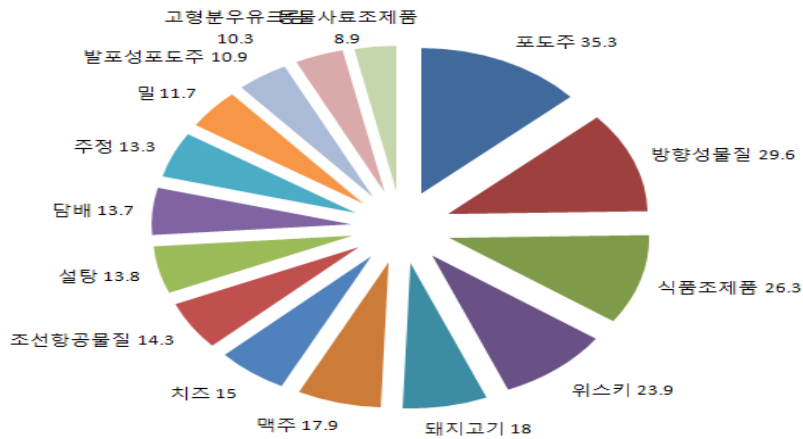


자료: EU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map/02_07.pdf)

2003~05년에 EU의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러시아, 스위스, 일본 등이다. 주요 수출시장별 점유율은 미국 21%, 러시아 8%, 스위스와 일본이 각각 7%로 이 4개국이 전체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 품목은 주정과 포도주, 식품 조제품, 방향성 물질, 맥주 등이다<그림 7>.

그림 7 EU-25의 주요 수출 농산물(2004~06년 평균)

단위: 억€



자료: EU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map/02_07.pdf)

2004년에 EU-25 수출과 수입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이다<표 1>. 578억€를 수출하고 603억€를 수입하여 25억€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5%에 이르는 수준이다.

2003년 기준으로 EU-15가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은 버터 20%, 분유 19%, 포도주 19%, 치즈 13%, 돼지고기 11% 등이다<표 2>. 수입 측면에서 EU는 세계 유지작물 수입량의 26%를 차지한다.

표 1 EU 주요 농산물의 무역수지(2004년)

단위: 백만€

품목	수입	수출	무역수지
육류	2,794	3,709	915
낙농품	1,000	5,000	4,000
화훼	1,191	1,335	145
채소류	2,688	1,378	-1,310
과실류	9,841	1,367	-8,473
커피, 차	3,566	835	-2,731
곡물	2,214	1,492	-722
유지작물	5,392	887	-4,506
채소	95	12	-83
동식물성 기름	3,445	2,411	-1,034
설탕	1,626	1,630	3
농산물전체	60,280	57,778	-2,502
전체상품	1,007,427	957,395	-50,033

자료: EU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

표 2 EU-15 주요 농산물의 세계무역 비중(2003년)

품 목	수입 비중(%)	수출 비중(%)	순 비중(%)
곡물	5.2	8.6	3.4
밀	6.1	9.8	3.7
사료곡물	5.1	5.9	0.8
옥수수	4.9	0.1	-4.8
유지작물	25.8	0.5	-25.3
콩	26.4	0.1	-26.3
포도주	14.8	19.2	4.4
설탕	5	12.1	7.1
우유	0.8	2.5	1.7
버터	7.6	20.3	12.7
치즈	4.8	13.3	8.5
분유	3.3	19.3	16
육류	6.1	8.2	2.1
소고기	6.3	4.7	-1.6
돼지고기	0.9	11.3	10.4
가금육	6.7	9.3	2.6
달걀	4.9	4.2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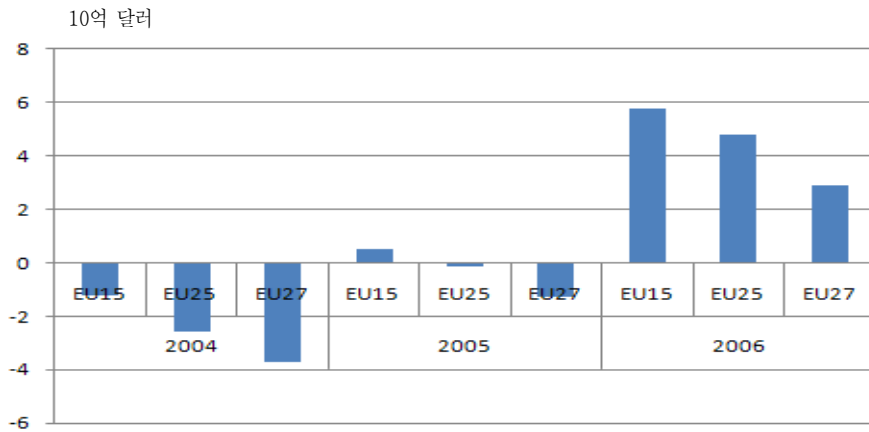
자료: EU 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

2. EU 회원국 확대의 영향

EU는 모든 회원국 그룹 수준(EU-15, EU-25, EU-27 등)에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다<그림 8>. 2004~06년 평균으로 EU-15(1995년까지 EU에 가입한 15개 회원국)는 16억€의 무역수지를 기록하여 순수출국이다. 반면에 NMS10(2004년에 EU에 가입한 10개 신규 회원국)과 NMS2(2007년에 EU에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각각 14억€와 13억€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NMS10의 총수입과 수출에서 EU-15는 각각 60%와 50%를 차지하였으므로 EU 확대가 전체 무역 규모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EU-15와 EU-25는 불가리아와 무역균형을 유

지하였고 루마니아에 대해서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8 EU의 농업 무역수지 추이 비교



자료: EU 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map/02_07.pdf)

3. 한·EU 농업 무역과 통상 현안

3.1. 농산물 무역 동향

2004~06년에 우리나라와 EU 사이의 농산물 수출은 평균 4,570만 달러이고 수입은 1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EU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로 낮은 형편이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1억 2,598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낸다<표 3>.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 잎담배, 인삼류 등이고 수입 품목은 위스키, 돼지고기, 올리브기름, 전분, 포도주, 혼합분유, 모피, 담배, 닭고기 등이다<표 4>,<표 5>.

표 3 우리나라와 EU 사이의 농업 교역

단위:1,000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수출	농산물	33,680	39,296	46,393	46,850	43,909	42,026
	축산물	1,760	4,906	4,757	4,792	2,285	3,700
	총계	35,440	44,202	51,150	51,642	46,194	45,726
수입	농산물	761,794	719,630	716,400	824,200	861,152	776,635
	축산물	270,297	227,883	405,527	527,785	593,320	404,962
	총계	1,032,091	947,513	1,121,927	1,351,985	1,454,472	1,181,598
무역수지	농산물	-728,114	-680,334	-670,007	-777,350	-817,243	-734,610
	축산물	-268,537	-222,977	-400,770	-522,993	-591,035	-401,262
	총계	-996,651	-903,311	-1,070,777	-1,300,343	-1,408,278	-1,135,872

자료: 농산물 유통공사(<http://www.kati.net>)

3.2. 주요 통상 현안

우리나라와 EU간 통상 문제는 주로 해마다 개최하는 한-EU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한-EU간 농업관련 통상 현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물 질병 발생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는 문제이다. EU는 국제 기준에 따라 지역화 개념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구제역, 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지역 이외로부터 수입은 허용하라는 것이다. 또한, EU는 회원국별 위생조건을 적용 대신에 EU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라고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동물 질병의 높은 위험도와 확산 위험 아래 지역화를 항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또한, 회원국별 위기상황 대처와 방제 능력이 차이는 나는 현실에서 EU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지 힘들다고 대응하고 있다.

표 4 EU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 현황

단위:1,000달러

품목	수출	2002	2003	2004	2005	2002~05 평균	
곡물	맥아	1,692	2,865	9,710	5,653	4,980	
	밀	145	4,502	193	245	1,271	
	호밀	10,321	10,165	85	130	5,175	
	옥수수가루	1,691	1,548	2,020	2,704	1,991	
서류	감자(조제)	371	1,205	1,221	1,004	950	
과일	복숭아통조림	3,783	3,740	2,449	2,517	3,122	
	포도쥬스(기타)	3,702	5,534	7,301	10,122	6,665	
채소	토마토(조제)	2,869	3,697	4,421	5,345	4,083	
	기타 채소종자	5,048	4,389	4,392	5,895	4,931	
화훼	올리브	916	1,013	1,378	1,266	1,143	
	백합(구근)	3,499	3,731	4,246	5,234	4,178	
유지	올리브유	7,729	18,684	47,614	105,797	44,956	
	팜유	1,201	1,419	2,336	2,220	1,794	
	기타 비휘발성유지	1,549	1,917	3,144	19,037	6,412	
	기타 식물성유지	6,910	6,968	5,292	4,855	6,006	
사료	배합사료(양돈)	4,095	4,250	4,115	4,609	4,267	
	배합사료(어류)	1,286	2,053	2,239	3,166	2,186	
	보조사료	4,154	4,580	4,917	5,847	4,875	
	사료첨가제	8,666	5,923	5,238	5,792	6,405	
기타	감자전분	14,457	17,788	22,445	21,545	19,059	
	식물성액즙과 엑스	14,112	12,179	15,246	19,201	15,185	
	에스테르화 전분	22,186	27,385	33,100	32,515	28,797	
	효모류	9,720	12,758	17,193	16,757	14,107	
	커피	6,196	6,816	5,586	5,314	5,978	
	코코아류	35,738	42,256	49,433	49,721	44,287	
	초콜릿	16,267	20,303	23,845	24,695	21,278	
	잎담배	17,273	25,689	28,864	28,032	24,965	
	균질화된 담배	0	4,453	7,583	1,953	3,497	
	제조담배	-	352	4,028	506	1,629	
	포도주	21,994	31,584	36,541	37,767	31,972	
	코냑	12,595	15,367	9,765	12,384	12,528	
	위스키	242,587	247,529	210,646	225,582	231,586	
	당류	9,519	9,723	13,639	13,239	11,530	
	콜라베이스	12,859	11,110	11,058	10,895	11,481	
	캔디류	7,122	9,692	9,634	11,230	9,420	
	면류(스파게티, 파스타)	10,787	10,251	10,860	11,721	10,905	
	아이스크림	3,443	4,657	5,166	6,237	4,876	
	합 계		756,881	717,196	712,726	816,606	750,852

자료: 농산물 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5 EU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축산물 현황

단위:1,000달러

품목	수출	2002	2003	2004	2005	2000~05 평균
산동물	말	932	1,058	4,649	4,627	2,817
	닭(종계)	4,075	2,334	2,859	2,631	2,975
쇠고기	쇠고기	195	207	124	382	227
돼지고기	돼지고기	117,416	100,669	182,115	257,855	165,514
가금육	닭고기	607	211	34,053	48,726	20,899
	칠면조고기	344	167	1,533	1,611	914
	기타 동물의 장	552	216	179	2,409	839
축산 가공품	소시지	1,203	1,289	789	705	997
	버터기제 조제품	7,126	6,145	13,082	25,362	12,929
	로열 젤리	13,222	15,026	16,206	17,802	15,564
낙농품	탈지분유	3,239	2,302	1,894	2,903	2,585
	유당	2,376	2,333	2,351	2,124	2,296
	버터	276	544	844	1,262	732
	유장	10,086	9,911	10,066	7,321	9,346
	치즈	8,340	15,462	21,493	16,144	15,360
	우유 조제품	30,709	18,363	48,776	45,844	35,923
합 계		232,901	207,307	377,393	482,592	325,048

자료: 농산물 유통공사(<http://www.kati.net>)

둘째, 육류 수출 작업장의 일괄 승인 문제이다. EU는 상대국 위생당국의 관리와 통제가 적정하다는 보증 아래 수출 작업장 목록을 승인하는 이른바 EU 방식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우리나라는 회원국별 위생수준과 능력이 차이 난다는 점을 들어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거쳐 승인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대응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과거 승인실적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없이 수출국이 제시한 점검 표만으로 승인하기도 한다.

셋째, EU 소고기의 수입 문제이다. EU는 자국산 소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산과 차별하지 않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광우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EU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임을 상기시키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한-EU FTA 협상을 계기로 EU는 증류주와 포도주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지리적 표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EU 수준의 보호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한지 오래지 않고 그 보호 품목 수도 많은 차이(EU 700여개, 우리나라 20여개)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참고자료

EU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map/02_07.pdf)

농산물 유통공사(<http://www.kati.net>)